

차세대 미래 교육 학술대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16일부터 18일까지 뉴욕에서

[텍사스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5/07/08 08:53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최미영)가 차세대 한인 교육의 미래 준비를 위해 33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뉴욕 Teaneck Marriott Hotel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주제는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이다.

이번 학술대회 기조 강연은 1.5세 재미한인 사업가 하형록(Tim Haahs 대표)씨가 맡는다.

하 대표는 재미한인으로서 주류 사회에서의 성공담과 함께 어떻게 사회 봉사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경험담을 중심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 이어 열리는 총회에서 제11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와 제 5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된다.

제 2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에서 입상한 교사들에 대한 시상식도 열린다.

국제 학술대회에 앞서 한국어 집중연수도 15일(수)-16일(목)에 마련된다. 달라스를 포함한 남서부협의회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에 4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한다.

1981년에 창립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현재 미국 전역 1,000여개의 회원 학교에서 9,000여명의 교사가 5만여 동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박철승 기자